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방_민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8.28~2017.12.1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스카이트레인역(49th langara station)에서 도보로 약 7분 내외 소요되며 학교 바로 앞에 manitoba라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우리 학교의 1/3정도로 크지는 않으며 학교에서 주로 이용하는 건물은 A빌딩, B빌딩, Student Union,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 T빌딩입니다. 점심은 홈스테이에서 거의 챙겨주시지만 만약, 교내에서 사먹고자 하는 경우 우리 학교처럼 학식 같은 것은 없으며, 대신 스타벅스, 팀홀튼, 카페테리아 내 식당, 초밥 등 여러 음식점이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교내에는 다양한 인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도인이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입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처음에 Writing, Reading, Speaking 세 가지로 구성된 레벨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이 배정되고 첫 주는 결정된 반에 학생들이 적절한 지에 대한 확인테스트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분이 있고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십니다. 수업은 4시간이며, LEAP3까지는 오후반, LEAP4는 랜덤으로 반반, LEAP5부터는 오전반입니다. 수업은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주제에 대한 article을 읽고 문제를 풀거나 클래스메이트들과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LEAP3와 LEAP4를 들었는데 과제에 매일 두 시간 이상을 할애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전 날 내 준 과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과제는 꼭 하셔야 합니다. 주로 저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과제를 하면서 수업 시간 외에도 영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LEAP3는 한 세션에 본 교재 외에 따로 3권의 책을 읽기 때문에 교내에 서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LEAP3와 4 둘 다 개인 및 팀발표 프로젝트가 두 번씩 있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은 전 세계에서 온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다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이나 밴쿠버 내에서 할 만한 것들, 조심해야 하는 것, 생활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랑가라 컬리지의 LEAP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제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정규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I-chat, I-sports, I-caf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들은 A빌딩 1층에 있는 IE Office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외에도 교내의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정말 건조합니다. 캐나다 파견 전 지난 기수의 수기에서 건조함 때문에 눈에 알려지가 생겼다는 것을 보고 걱정했는데 저 또한 알려지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눈이 자주 붓고 오돌토돌한 것이 났으며 따가운 증상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조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예민하신 분들은 보습이 잘 되는 화장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p> <p>날씨는 8, 9월은 매우 덥고 햇빛이 따사롭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여행이든 많이 놀러다니는 것이 좋고, 반팔, 반바지도 여러 벌 챙겨야 합니다. 10월말부터는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조금씩이라도 거의 비가 매일 오며 강한 바람과 함께 올 때도 있어 한국에서 튼튼한 우산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11,12월은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패딩같은 두꺼운 겨울옷도 챙겨야 합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매우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홈리스들이 많긴 한데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8,9월에는 해가 7,8시 넘어서까지 떠있어서 그다지 어둡지 않은데 10월이 되면서부터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12월에는 5시만 되어도 어두워졌습니다. 다운타운쪽은 상점들의 불빛이나 가로등 때문에 밝은데 밴쿠버의 거리는 한국과는 달라서 제가 지냈던 57번가쪽은 대부분이 가정집이 모여있는 곳이라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데 East hastings st는 마약하는 사람과 홈리스가 많으니 조심하시고 차이나타운쪽에도 밤에는 조심해야 합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랑가라 컬리지는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지 않으며 홈스테이를 연결하여 줍니다. 저는 필리핀가정 홈스테이에 배정되었고 같은 랑가라 컬리지를 다니는 일본인 룸메가 한 명 있었습니다. 2층집이었으며 1층은 주로 거실, 부엌, 다이닝룸 등의 생활공간이 있었고 2층에 방들과 저와 다른 룸메를 위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첫 날에 집안을 소개해주시면서 안내사항들이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돌릴 수 있었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규칙들이었습니다. 식사는 가정마다 다른데 저희 가정은 세 끼 모두 호스트 마더가 만들어주셨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캐나다달러로 830불이고 보통 월말이나 월초에 지불합니다. 홈스테이 중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호스트에게 직접 말하거나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서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같이 간 사람의 홈스테이 가정 중에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빨래를 2주에 한 번하게 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합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말씀하셔서 해결해야합니다. 홈스테이와 안 맞는다 싶으면 룸렌트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식사는 가정마다 다른데 저의 경우 호스트 마더가 세 끼 전부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베이글이나 팬케이크, 시리얼, 간단한 과일이었고, 요리를 좋아하시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셔서 냉동식품은 거의 주신 적이 없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항상 밥과 고기가 있었습니다. 대신 제가 음식을 직접 요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은 수업시간 때문에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바로 통에 넣어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카페테리아에 전자레인지와 숟가락, 포크가 있어 음식을 먹기 좋습니다. 외국에 나왔을 때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가끔 친구들과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밴쿠버는 스카이트레인이 잘 되어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두 개를 탔어야 했고 저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매 달 먼슬리패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먼슬리패스는 스카이트레인 역의 기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93달러이고 한 번 사면 그 달 동안 버스와 스카이트레인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1,2,3존으로 나뉘어있는데 학교가 있는 곳이 1존이기 때문에 주로 1존 먼슬리를 이용합니다. 다른 존으로 넘어갈 때는 추가금액이 발생하는데 평일저녁 여섯시 반이 지나거나 주말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먼슬리를 사지 않을 경우</p>

	<p>현금을 내면 종이로 된 표를 주는데 환승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시간 반까지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학할 때나 평소에 본인의 교통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먼슬리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Transit이라는 어플은 현위치와 가까운 정류장의 버스들과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60만원	출국 전 편도티켓만 구매하여 나중에 입국티켓 따로 구매
Fees	본교 등록금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보험료	71440원	국내에서 미리 준비 한화해외여행보험(표준플랜)
숙소	830CAD*4	홈스테이
식비		
교통비	매달 93CAD(약 9만원)*4	먼슬리 패스
책값	26CAD	LEAP3때 구매(2권)
통신비	약 16만원(4달)	45CAD플랜 사용
기타1	139CAD(130,000원)	한국으로 택배(CJ사 이용)
기타2	약 600CAD	빅토리아 여행 및 록키투어(블루버드) 비용
합계	650~7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제 경험으로 미루어봤을 때 출국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유심입니다. 한국에서 비교만 하다가 살 시기를 놓쳐 밴쿠버에 도착하여 구매했는데 그 동안 매우 불편했습니다. 우벤유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등을 참고하여 꼭 유심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을 구비해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화 해외여행보험 표준플랜으로 들었는데 막상 쓸 일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의료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자주 아프신 분이라면 비싼 보험을 드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저렴한 보험을 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필품들보다 옷이나 신발을 많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 남짓의 시간이지만 여름부터 겨울까지 다 있기 때문에 반팔부터 패딩까지 골고루 챙기는 것이 좋으며 속옷과 양말, 수건은 꼭 많이 가져오세요. 밴쿠버도 사람 사는 곳이다보니 웬만한 위생용품들 다 구비되어있습니다. 가격도 달러라마나 달러트리에 가면 거의 1달러 내외이고 샤퍼스에 가면 우리나라 올리브영이나 왓슨스에서 볼 만한 화장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라이기도 만원 내외로 구매가능합니다.

-110볼트 몇 개와 멀티탭 하나면 끝입니다.

-상점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텍스가 붙기 때문에 가격표에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텍스를 고려하여 여유롭게 생각해야합니다.

-유용한 어플 : Google map, Transit

- 국제학생증이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학생인 것을 증명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여 발급받아서 갔는데 전혀 쓸 일이 없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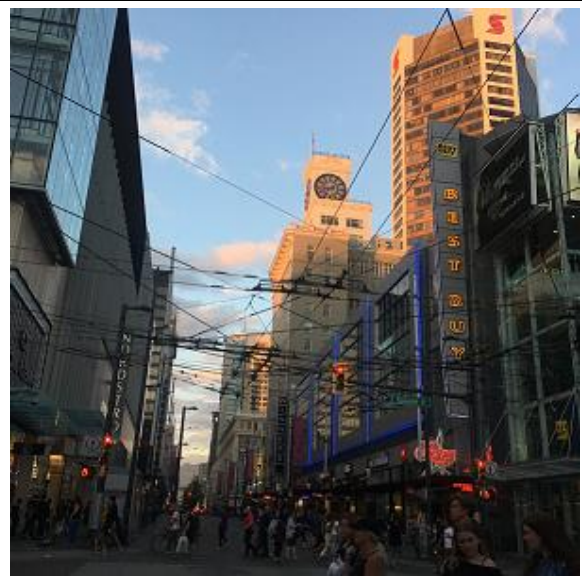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 정말 행복했고 영어공부 외에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가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고 역시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LEAP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권의 대학의 입학이나 편입 등을 목표로 하여 문법, 독해, 듣기 종합적으로 배우지만 중점을 두는 부분이 writting이었습니다. 스피킹 향상이 주목적이었던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달라서 수업은 열심히 듣고 수업 후에 선생님이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4개월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를 할 때 틀리진 않을까 하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랑가라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같이 간 언니, 오빠들과도 마음이 잘 맞아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반 배정을 할 때 나라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나누기 때문에 같은 반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낮선 타지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랑가라 컬리지에서 공부하면서 한 세션이 끝나고 다음 세션이 시작하기 전이나 모든 세션이 끝나고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애틀도 밴쿠버에서 버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저는 세션이 모두 끝나고 미국 서부를 혼자 여행하였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캐나다는 다문화국가이기 때문에 차별이 거의 없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meet up 어플이나 교내의 프로그램들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개월은 매우 매우 짧은 시간이니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실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랜빌 아일랜드. 날씨 좋은 날에 그랜빌 아일랜드는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버스로 편하게 갈 수 있으며 가서 클램차우더는 꼭 먹어야 합니다.



다운타운 거리. 다운타운에는 홈리스도 많고 거리에서 마약냄새가 많이 나니 밤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Thanksgiving day에 집에서 가족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블루버드 사(벤쿠버 내 한인 여행사)를 이용하여 투어로 록키산맥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p>빅토리아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빅토리아는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많이 가는데 주요 관광지들이 모여있어서 당일치기로 충분하긴 합니다만 국회의사당의 야경이 매우 아름다워 낮을 잃고 바라볼 정도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1박 2일을 추천합니다.</p>	<p>수업 끝나고 도서관 가는 길에 찍은 사진 저기 보이는 건물이 도서관입니다</p>